

광주·전남도 개미들 주도 위태로운 주식 광풍

지난달 거래대금 19조8815억원
전월보다 27%, 4조원 이상 늘어
삼성전자 등 대형주 중심 매수
부동산 실거래 위반도 크게 늘어
최근 3년 720건...2095명 조사

스닥 합산)은 전달보다 1664만주(-0.9%) 줄어든 18억7118만주를 기록했다.
반면, 거래대금은 전달보다 4조2306억원(27.0%) 증가한 19조8815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10조7356억원, 코스닥은 9조1459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권에는 셀트리온과 '9만 전자'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 신풍 제약, LG전자 등 고가주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주당 200원대인 서울식품은 거래량 1위에 올랐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증시 투자 열풍이 광주·전남에서도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증시 거래 대금은 전달에 비해 4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지역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이어 화순에 소재한 의학·약학 연구개발업체 박셀바이오가 3위에 올랐다. 지난 달 박셀바이오 시가총액은 5559억원 오르며 79.1%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경우 한전이 3조8197억원(27.7%) 오르면서 총 3조7183억원 증가했다. 코스닥은 5117억원(15.1%) 증가하면서 전체 시총은 전달보다 4조2300억원(19.2%) 올랐다.

◇광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720건·2095명 정밀 조사=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상당수 있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이다. 자치구별로 동구 77건, 서구 129건, 남구 160건, 북구 136건, 광산구 218건이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 코스피 지수는 65년 만에 '꿈의 지수'인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까지 들쭉거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와 부동산·증시 과열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거래 대금 전 달에 비해 4조 이상 늘어... 대형주 중심 매수=광주·전남지역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등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0년 12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민들의 거래대금은 전달 보다 27.0% 급증했다. 반면, 주식거래량은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가주'인 대형주 매수에 열을 올렸다는 얘기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12월 거래량(코스피·코

사 대상 인원은 매도인 780명, 매수인 775명, 공인중개사 540명 등 2095명이다. 유형별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 자료 390건,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거짓 신고 의심 318건,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 12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해 신고서 7건을 제출받았다.

자진신고자에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 날 소상공 100만8천명에 100만~300만원씩

광주·전남 대상자 18만 5000명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바팀목자금을 신청 첫날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바팀목자금을 신청한 100만8000명에게 각 100만~300만원씩 총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명의 36.5%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바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는 각각 7만5000여명, 1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지역별 접수 및 지급액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

았다.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게는 당일 오후 1시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됐으며,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게는 12일 오전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이중 일반업종 63만6000명에게는 100만원씩 6362억원, 영업제한 업종 32만명에게는 200만원씩 6397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5만2000명에게는 300만원씩 1558억 원이 지급됐다.

바팀목자금 신청 첫날 신청률 36.5%는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첫날 신청률보다 7%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이는 지원금액이 늘어 관심이 커진 데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신청 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방문해 둘러본 뒤 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오른쪽·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0%)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광주시는 나머지 정밀조사 대상에게는 1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2차 소명을 요구하고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밀 조사에서 실거래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도 국제청에 통보된다. 광주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사람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세균 총리 “또 다른 백신 도입...상당한 진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 내용은 계약 확정 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고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중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지난 주말부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1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주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며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이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확실한 안정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 경각심이 헤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고, 세계 사례에서도 선부문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는 다시 사회적 봉쇄조치에 들어갔고 일본은 한 달 새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긴급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이라며 “K-방역이 똑같은 우를 범해선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바백스 백신 1천만명분 협상 막바지...이르면 2분기 도입

정부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분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는 기존에 국내 도입 계약이 이뤄진 4종의 백신 외에 노바백스의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며, 물량은 1000만명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2분기에 도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

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다. 특히 이 백신은 유효기간이 2~3년으로 길어 기존에 도입될 예정인 4종의 백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총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우선 정부는 ▲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2000만 회분) ▲ 안센 600만명분(600만 회분) ▲ 화이자 1000만명분(2000만 회분) ▲ 모더나 2000만명분(4000만회분) 등 4곳과 각각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재외국민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